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71호 【루게 제 24484호】 주체 103 (2014)년 3월 12일 (수요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군사학교 교직원들의 사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군사학교 교직원들의 사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

최룡해 동지, 장정남 동지, 변인선 동지, 서홍찬 동지, 김수길 동지, 김영철 동지, 조경철 동지, 황병서 동지와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을 비롯한 인민군지휘성원들, 군사학교들의 교직원, 학생들이 경기를 보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사격경기는 군사학교 교직원들의 사격술을 평가하고 전군에 명사수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는데 목적을 두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사격경기를

지도하시기 위해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격경기를 시작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



였다. 권총과 자동보총사격으로 나뉘어 진행된 경기는 군사학교들에서 선발된 교직원들이 제정된 거리와 시간 및 자세에서 목표를 쏘아 맞힌 점수를 가지고 승부를 겨루었다. 경기에 참가한 교직원들은 평시

에련마한 사격술을 보여주었다. 화선을 차지한 사수들이 목표를 정확히 명중하여 높은 점수를 맞을 때마다 관람자들은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교직원들의 사격경기를 주의깊게

보시면서 지휘관들이 총을 잘 쏘야 군인들을 명사수로 준비시킬수 있다고, 그러자면 그들을 양성하는 군사교육기관의 모든 교직원들부터 높은 사격술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인들이 정치사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준비되어있어도 사격을 잘하지 못하면 맡겨진 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사격훈련의 된바람을 일으키자면 사격경기를 자주 조직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사격경기에서는 김일성정치대학이 권총사격에서,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이 자동보총사격에서 우승하였으며 종합우승은 김일성정치대학이 쟁취하였다.

사격경기총화와 우승한 단체와 교직원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오늘 진행된 사격경기는 훈련을 첫자리에 놓고 제도화, 생활화하여야 군인들을 그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목표들을 단방에 어김없이 소멸하는 백발백중의 명사수로 준비시킬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었다고 말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군사학교 직원들의 사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력강화에서 기본은 훈련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
하시였다.
사격경기가 끝난 다음 평양항
공구락부선수들의 모범출연이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과 인민군장병들은 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높이 받들고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함으로써 사격경기
에서 올린 총성을 조선인민의 불
구대천의 원수인 미제침략자들에
게 몹서리치는 무자비한 죽음의

철추를 안기고 제국주의운명에 중
지부를 찍는 최후승리의 축포성으
로 이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
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하고있는 중앙동물원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하고있는 중앙동물원을 돌아보시였다.

한광상동지, 리재일동지, 황병서동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중앙동물원과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2년 5월 중앙동물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이곳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전면시킬것을 직접 발기하시고 개건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건설자들은 새로 건설하는 7개의 대상들에 대한 골조공사를 끝내고 이미 있던 동물사들에 대한 개건보수도 동시에 힘있게 내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설 및 개건하고있는 여러



중앙동물원의 정문을 동물원의 특색이 살아나게 건설하고 철갑상어못을 꾸리며 원림록화사업도 잘하여 주위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중앙동물원에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에게 동식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상식을 줄수 있는 종합적인 자연박물관도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앙동물원과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귀중한 유산으로 남겨주신 나라의 재부이며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거점인 동물원을 당에서 제시한 기일안에 훌륭히 개건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중앙동물원의 전체 종업원들과 건설자들은 우리 인민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마음

은 새로 건설하는 7개의 대상들에 대한 골조공사를 끝내고 이미 있던 동물사들에 대한 개건보수도 동시에 힘있게 내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설 및 개건하고있는 여러

대상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쉼김새사를 비롯한 새로 일떠세우는 건축물들을 동물들의 생태학적특성에 맞게 시공하며 참관자들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해줄수 있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족관을 비롯한 개건중에 있는 모든 대상들을 인민들에게 웃음과 희열을 안겨주는 즐거운 휴식장소로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중앙동물원을 개건하면서 희귀하고 판상적효과가 좋은 동물들의 종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며 먹이 및 물보장대책과 수의방역체계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총정의 열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광범히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10일 여러 나라에서 광범히 보도하였다.

중국보도사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조선중앙선거위원회가 보도를 발표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전체 선거자들이 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높이 추대되시였음을 보도하였다.

중앙선거위원회 보도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은 오늘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일대 양양기를 열어가고있다.

라 빛나는 새 역사를 창조해나가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고 지적하였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조선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11호선거구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제출한 투표결과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령도자께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높이 추대되시였음을 보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하시어 확고한 조직사상적담보를 마련하시였다.

또한 김일성-김정일전략철학을 발전통부화하시어 조선인민군을 신군현명의 믿음직한 최후대, 역적의 지지점으로 내세워주시고 최정예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하시였으며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시어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에 김정일에국주의열풍을 일으키시고 군대와 인민의 애국의 힘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적극면을 열어나가고 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어 강성국가들의 면모를 보여주는 자랑스

성과들이 려이어 이루어지게 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조선은 앞으로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국가로 강성변영할것이다.

우와 같은 소식을 중국의 신화통신과 인터넷홈페이지 보도망, 로씨야의 이파르-파스통신, 인메르팍스통신, 인터넷통신 에르베가, 에호모스크비방송, 마야크방송, 신문 《폼소프스까야 브라우다》, 싱가포르 TV《아시아소식통로》, 일본의 교도통신, 오스트랄리아의 ABC방송, 알제리의 《알 하바르》를 비롯한 신문들과 인터넷홈페이지들, 영국의 BBC방송, 미국의 AP통신과 VOA방송도 일제히 전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조선인민군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신 소식을 9일과 10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투표가 9일 저녁에 끝났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이날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하시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05호구 제43호분구선거장에서 선거에 참가하시였다고 전했다.

중국보도사는 다음과 같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신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조선인민군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신 소식을 9일과 10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투표가 9일 저녁에 끝났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이날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하시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05호구 제43호분구선거장에서 선거에 참가하시였다고 전했다.

중국보도사는 다음과 같이

여러 나라에서 보도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조선인민군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신 소식을 9일과 10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투표가 9일 저녁에 끝났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이날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하시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05호구 제43호분구선거장에서 선거에 참가하시였다고 전했다.

중국보도사는 다음과 같이

마치신 다음 대학을 시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적교양실과 연혁실에 이어 전자도서관, 군인회관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시고 훌륭한 교육환경을 마련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교직원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화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의 당정치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김일성정치대학의 위치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교수교양과 교육환경, 생활조건을 끊임없이 개선하는데서 지원

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대학의 교직원들이 선군혁명위업수행의 골간들을 키워내는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당성이 강하고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정치일군들을 더 많이 양성해 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인터넷홈페이지들인 신화망, 인민망, 보도망, 방송망, 청년망, 경제망, 중국망, 로씨야의 이파르-파스통신, 미국의 VOA방송도 이 소식을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앙선거위원회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 결과에 대하여

은 나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승리의 신심드높이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전체 선거자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속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가 성과적으로 실시되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2014년 3월 9일에 실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는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법에 철저히 준하여 실시되었다. 모든 선거자들은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높은 영예와 본분을 지니고 사회주의조국의 무궁번영과 인민정권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에 한사랄같이 참가하였다. 선거결과를 종합한데 의하면 전국적으로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선거에 참가하여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들에게 100% 찬성투표하였다. 이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인 우리 공화국정권에 대한 전체 선거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이며 가장 우월한 우리의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다른 나라에 가있거나 먼바다에 나가 일하고있는 선거자들은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전체 선거자들은 이번 선거를 통하여 당과 인민대중, 평등지와 원만군인이 하나의 사상과 뜻으로 뭉치고 뜨거운 혈연의 정으로 이어진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온갖 도전과 난관을 이겨내며 백두산대국의 백승의 력사를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기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역설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공화국공민으로서의 숭고한 자각과 드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사회주의 나라를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보란듯이 일떠세우려는 드림없는 지향과 의지를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주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전국의 구선거위원회들에서 제출한 선거결과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당선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을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제1호 만경대선거구 박정남	제102호 알일 선거구 림동철	제204호 양덕 선거구 강추련	제305호 을파 선거구 김현숙	제406호 단년 선거구 리영진	제500호 서문 선거구 김용진	제594호 교동 선거구 오수용
제2호 광복 선거구 최정일	제103호 룡운 선거구 리영수	제205호 동양 선거구 김옥련	제306호 옥계 선거구 최경룡	제407호 곡산 선거구 조준학	제501호 삼일 선거구 김창남	제595호 청암 선거구 김철호
제3호 팔팔 선거구 윤영철	제104호 순천 선거구 오용근	제206호 은산 선거구 김태수	제307호 서대 선거구 김일영	제408호 평안 선거구 류명금	제502호 상선 선거구 추영숙	제596호 련진 선거구 송봉수
제4호 장훈 선거구 김승길	제105호 태백산 선거구 김광혁	제207호 천성 선거구 김형봉	제308호 석천 선거구 남영숙	제409호 평안 선거구 문영숙	제503호 동흥산 선거구 문영숙	제597호 망향 선거구 신철우
제5호 갈밀길 선거구 오봉태	제106호 오대산 선거구 리병철	제208호 구봉 선거구 현상주	제309호 학현 선거구 우창식	제410호 정봉 선거구 조성환	제504호 서상 선거구 태중수	제598호 회령 선거구 정성희
제6호 죽전 선거구 리을설	제107호 은파산 선거구 차춘식	제209호 채동 선거구 김경호	제310호 벽성 선거구 박은옥	제411호 추천 선거구 박의춘	제505호 풍호 선거구 문상권	제599호 오산 선거구 리순실
제7호 대평 선거구 김영복	제108호 칠봉산 선거구 심재호	제210호 죽천 선거구 신승식	제311호 죽천 선거구 최정숙	제412호 평안 선거구 최경남	제506호 회상 선거구 유경숙	제600호 창학 선거구 김금옥
제8호 원로 선거구 김동숙	제109호 멸악산 선거구 최영호	제211호 망일 선거구 김광옥	제312호 강령 선거구 장영수	제413호 청수 선거구 허영춘	제507호 세거리 선거구 한성일	제601호 유선 선거구 유철우
제9호 경상 선거구 김광철	제110호 장암산 선거구 허 룡	제212호 북창 선거구 김영철	제313호 부포 선거구 여만철	제414호 금천 선거구 김완수	제508호 정성 선거구 권선화	제602호 송암 선거구 전성만
제10호 교구 선거구 홍서훈	제111호 봉수산 선거구 리성순	제213호 송남 선거구 신승희	제314호 옥동 선거구 김동희	제415호 현내 선거구 박혜숙	제509호 덕산 선거구 조영철	제603호 학성 선거구 안동욱
제11호 련화 선거구 김경옥	제112호 소백산 선거구 김정관	제214호 옥천 선거구 조원화	제315호 옥진 선거구 심철호	제416호 토산 선거구 김장옥	제510호 사포 선거구 리춘화	제604호 제강 선거구 리성재
제12호 서창 선거구 김경순	제113호 남천강 선거구 황근일	제215호 일포 선거구 우연용	제316호 맹정 선거구 백경진	제417호 양사 선거구 장기호	제511호 새거리 선거구 정병문	제605호 장평 선거구 허재물
제13호 평천 선거구 리연희	제114호 장자강 선거구 김명식	제216호 맹산 선거구 조원택	제317호 삼산 선거구 김복룡	제418호 장포 선거구 조영철	제512호 초운 선거구 김승기	제606호 봉포 선거구 김금옥
제14호 안산 선거구 리영숙	제115호 신파강 선거구 진철수	제217호 내원 선거구 박동철	제318호 전산 선거구 김정만	제419호 구화 선거구 박순길	제513호 홍덕 선거구 유광종	제607호 길주 선거구 강영태
제15호 봉학 선거구 박학심	제116호 대성산 선거구 변인선	제218호 대흥 선거구 김상수	제319호 태탄 선거구 주중경	제420호 상원 선거구 김영호	제514호 홍서 선거구 문광일	제608호 일신 선거구 김 일
제16호 룡교 선거구 문석불	제117호 만년산 선거구 전 일	제219호 회창 선거구 손석근	제320호 파산 선거구 리중국	제421호 명당 선거구 리중국	제515호 해안 선거구 정창식	제609호 주남 선거구 김성호
제17호 새마을 선거구 조길녀	제118호 인덕산 선거구 김진철	제220호 인각 선거구 김배국	제321호 장연 선거구 김태일	제422호 중화 선거구 한운수	제516호 운중 선거구 김일훈	제610호 영복 선거구 김수일
제18호 보강 선거구 노광선	제119호 구월산 선거구 노광선	제221호 청남 선거구 박영진	제322호 락연 선거구 김일중	제423호 채송 선거구 김기남	제517호 천기 선거구 송승일	제611호 화대 선거구 조금희
제19호 류경 선거구 김용철	제120호 한나산 선거구 노광선	제222호 김은금 선거구 안철식	제323호 삼천 선거구 김익정	제424호 송호 선거구 임 훈	제518호 우정 선거구 최 현	제612호 우포 선거구 유철우
제20호 붉은리 선거구 리미옥	제121호 천마산 선거구 진용학	제223호 득장 선거구 리정천	제324호 달천 선거구 김정	제425호 마탄 선거구 리화설	제519호 서호 선거구 김철용	제613호 명천 선거구 남승우
제21호 개천 선거구 양형식	제122호 삼각산 선거구 리정천	제224호 옥곡 선거구 김동일	제325호 송화 선거구 김성옥	제426호 평명 선거구 김의봉	제520호 신포 선거구 최형철	제614호 봉암 선거구 김택구
제22호 비파 선거구 조연준	제123호 승리산 선거구 최동운	제225호 신의주 선거구 서란희	제326호 은물 선거구 리성옥	제427호 완계 선거구 최창성	제521호 풍어 선거구 리혁	제615호 명간 선거구 안동춘
제23호 전승 선거구 오극필	제124호 오성산 선거구 리영애	제226호 백사 선거구 리학성	제327호 금산포 선거구 강영호	제428호 연주 선거구 안용남	제522호 양항 선거구 리혁	제616호 룡탄 선거구 리법경
제24호 진마을 선거구 변영삼	제125호 은백산 선거구 최동운	제227호 남포 선거구 리광근	제328호 장현 선거구 김승두	제429호 부창 선거구 진길수	제523호 양화 선거구 동영일	제617호 국동 선거구 최영숙
제25호 서성 선거구 김혜성	제126호 봉송산 선거구 김광철	제228호 민포 선거구 리광근	제329호 은천 선거구 김덕성	제430호 야학 선거구 리 판	제524호 단천 선거구 리안화	제618호 어항 선거구 전학숙
제26호 장경 선거구 김동혁	제127호 백마산 선거구 리정국	제229호 수문 선거구 전일훈	제330호 광담 선거구 홍승진	제431호 석현 선거구 한영호	제525호 쌍룡 선거구 전혜성	제619호 애대 선거구 전광록
제27호 하신 선거구 김경수	제128호 송악산 선거구 오정희	제230호 천진 선거구 오정희	제331호 안악 선거구 지상산	제432호 의룡 선거구 김해만	제526호 신단 선거구 태태철	제620호 경성 선거구 정영수
제28호 중신 선거구 박봉남	제129호 수양산 선거구 안국철	제231호 류상 선거구 장명하	제332호 월지 선거구 최영삼	제433호 내룡 선거구 김광주	제527호 오봉 선거구 홍봉철	제621호 하변 선거구 남홍선
제29호 대성 선거구 태형철	제130호 수덕산 선거구 최성운	제232호 와이 선거구 리복국	제333호 대추 선거구 황윤남	제434호 만포 선거구 김춘설	제528호 룡탄 선거구 리춘삼	제622호 승암 선거구 남홍선
제30호 동성 선거구 김영주	제131호 신덕산 선거구 김계영	제233호 와이 선거구 리복국	제334호 엄포 선거구 김태일	제435호 문악 선거구 변영환	제529호 광천 선거구 리춘삼	제623호 무평 선거구 양영철
제31호 안학 선거구 정명일	제132호 명당산 선거구 김계영	제234호 락청 선거구 박종근	제335호 신천 선거구 문용조	제436호 문악 선거구 변영환	제530호 백곡산 선거구 리춘근	제624호 무산 선거구 명승철
제32호 동문 선거구 김성희	제133호 봉악산 선거구 박영복	제235호 연학 선거구 윤두근	제336호 새날 선거구 채영일	제437호 화천 선거구 조영호	제531호 금골 선거구 최철	제625호 사돌 선거구 표일식
제33호 풍문 선거구 김석숙	제134호 대명산 선거구 김명남	제236호 구성 선거구 서은영	제337호 새길 선거구 리영호	제438호 송포 선거구 서경호	제532호 북두 선거구 황성철	제626호 상왕 선거구 김용광
제34호 문수 선거구 리명철	제135호 봉악산 선거구 김석숙	제237호 백석 선거구 박춘진	제338호 반정 선거구 리중복	제439호 추경 선거구 라경룡	제533호 수동 선거구 리양한	제627호 연사 선거구 로성웅
제35호 랑제 선거구 리용무	제136호 성천강 선거구 안지용	제238호 남현 선거구 윤동현	제339호 채평 선거구 리안숙	제440호 청년 선거구 전용용	제534호 룡평 선거구 강봉후	제628호 오성 선거구 리태진
제36호 사곡 선거구 량봉진	제137호 평천강 선거구 박수일	제239호 남포 선거구 리중국	제340호 삼지강 선거구 리혜숙	제441호 청년 선거구 리용	제535호 장동 선거구 황성철	제629호 왕제 선거구 김성중
제37호 룡대 선거구 최형남	제138호 수경강 선거구 김승철	제240호 차흥 선거구 오문철	제341호 장곡 선거구 리명길	제442호 성간 선거구 박도춘	제536호 고원 선거구 김연경	제630호 종성 선거구 김영걸
제38호 동대 선거구 김석남	제139호 차일강 선거구 김승일	제241호 정주 선거구 김익철	제342호 북지 선거구 김대성	제443호 성룡 선거구 신관진	제537호 부태 선거구 김현철	제631호 경원 선거구 서길호
제39호 신리 선거구 김인철	제140호 삼천강 선거구 박정천	제242호 덕연 선거구 김희숙	제343호 신원 선거구 김옥규	제444호 진천 선거구 장춘실	제538호 요덕 선거구 한영국	제632호 고원 선거구 김명선
제40호 삼포 선거구 윤석진	제141호 섬진강 선거구 송석원	제243호 고안 선거구 김경애	제344호 무학 선거구 리우영	제445호 학무 선거구 정승기	제539호 금야 선거구 리규만	제633호 룡복 선거구 지재봉
제41호 산교 선거구 리명일	제142호 영현강 선거구 김춘삼	제244호 고안 선거구 김경애	제345호 봉천 선거구 강영준	제446호 고원 선거구 김철철	제540호 인흥 선거구 장순남	제634호 룡흥 선거구 홍만호
제42호 등매 선거구 김영일	제143호 옥현강 선거구 최봉태	제245호 갈산 선거구 권성호	제346호 신담 선거구 강경희	제447호 룡원 선거구 김동철	제541호 가진 선거구 전용남	제635호 학송 선거구 오영남
제43호 룡곡 선거구 황길중	제144호 레산강 선거구 김철	제246호 갈산 선거구 권성호	제347호 배천 선거구 원경호	제448호 동진 선거구 박영수	제542호 평명 선거구 전광호	제636호 오봉 선거구 자성남
제44호 영제 선거구 문강순	제145호 외곡강 선거구 김수길	제247호 갈산 선거구 리만진	제348호 금성 선거구 진상철	제449호 송원 선거구 리용주	제543호 중남 선거구 김성형	제637호 해산 선거구 박철호
제45호 락랑 선거구 최성일	제146호 갈마강 선거구 천재원	제248호 수포 선거구 강원식	제349호 정촌 선거구 김진삼	제450호 장강 선거구 김창명	제544호 정평 선거구 남용환	제638호 해정 선거구 장영숙
제46호 오성 선거구 장재인	제147호 해금강 선거구 김철	제249호 청성 선거구 김봉일	제350호 은봉 선거구 김경삼	제451호 향하 선거구 김재만	제545호 선덕 선거구 박춘남	제639호 탐성 선거구 장인숙
제47호 정매 선거구 최명학	제148호 비파강 선거구 김광철	제250호 피원 선거구 리영철	제351호 금곡 선거구 김영철	제452호 화림 선거구 리정숙	제546호 신상 선거구 리동춘	제640호 송봉 선거구 리상원
제48호 충성 선거구 리근일	제149호 구원강 선거구 리영철	제251호 랑핵 선거구 한성희	제352호 연안 선거구 김경삼	제453호 광령 선거구 김광철	제547호 초원 선거구 리혜정	제641호 룡봉 선거구 김기남
제49호 승문 선거구 김석희	제150호 대동강 선거구 장경남	제252호 백마 선거구 김영선	제353호 오현 선거구 리연실	제454호 자성 선거구 장성국	제548호 독산 선거구 장 응	제642호 신파 선거구 김승희
제50호 판리 선거구 김양진	제151호 차천강 선거구 리철	제253호 봉천 선거구 리명철	제354호 송호 선거구 리연실	제455호 중강 선거구 변인윤	제549호 장진 선거구 김철규	제643호 포흥 선거구 한명성
제51호 원암 선거구 박형철	제152호 압록강 선거구 리명철	제254호 북중 선거구 김명만	제355호 천태 선거구 공영옥	제456호 수강 선거구 리연실	제550호 양지 선거구 최철후	제644호 오읍 선거구 안만길
제52호 풍성 선거구 리성희	제153호 두만강 선거구 박동학	제255호 용암포 선거구 권영호	제356호 해원 선거구 리정복	제457호 위원 선거구 오금철	제551호 부전 선거구 최철후	제645호 풍산 선거구 김유숙
제53호 립진 선거구 리정복	제154호 근마산 선거구 안기철	제256호 신암 선거구 최영숙	제357호 창탄 선거구 리창룡	제458호 위원 선거구 변원철	제552호 신흥 선거구 김석순	제646호 보천 선거구 방광남
제54호 룡곡 선거구 주규상	제155호 내금강 선거구 김명철	제257호 염주 선거구 주영식	제358호 남촌 선거구 권태문	제459호 초산 선거구 리희정	제553호 상원 선거구 채봉춘	제647호 삼지연 선거구 주태경
제55호 은하 선거구 김영남	제156호 금수 선거구 윤정린	제258호 다사 선거구 최영숙	제359호 덕담 선거구 리홍수	제460호 고봉 선거구 박경일	제554호 부흥 선거구 한주성	제648호 대흥 선거구 김광호
제56호 이은 선거구 최춘식	제157호 해발 선거구 김성덕	제259호 의화 선거구 백 인	제360호 장현 선거구 리홍수	제461호 우시 선거구 김덕훈	제555호 영광 선거구 리안호	제649호 백암 선거구 안문학
제57호 마산 선거구 최성일	제158호 모란봉 선거구 김원홍	제260호 칠산 선거구 서동명	제361호 봉원 선거구 최희	제462호 세길 선거구 오금성	제556호 수전 선거구 박정현	제650호 운흥 선거구 송정수
제58호 과학 선거구 장 철	제159호 해방 선거구 최부일	제261호 가산 선거구 리철	제362호 구미 선거구 최강철	제463호 판봉 선거구 변용규	제557호 기상 선거구 최귀현	제651호 운흥 선거구 리성국
제59호 배산 선거구 박태성	제160호 별동 선거구 장필훈	제262호 동림 선거구 홍경숙	제363호 파일 선거구 오정섭	제464호 장덕 선거구 윤상범	제558호 함주 선거구 안정수	제652호 광산 선거구 최기준
제60호 사동 선거구 조형철	제161호 현진 선거구 김명주	제263호 청강 선거구 최상진	제364호 신대 선거구 김창명	제465호 북촌 선거구 김성봉	제559호 구수 선거구 김성봉	제653호 감천 선거구 연태정
제61호 두루 선거구 최태보	제162호 화불 선거구 김명주	제264호 수포 선거구 리영철	제365호 사리원 선거구 오명준	제466호 명석 선거구 허종만	제560호 동봉 선거구 리영애	제654호 오일 선거구 안영기
제62호 류암 선거구 최태보	제163호 진진 선거구 황민환	제265호 신원 선거구 정영원	제366호 원주 선거구 오일정	제467호 원남 선거구 림순희	제561호 상중 선거구 김성석	제655호 풍서 선거구 리경화
제63호 리원 선거구 정영선	제164호 자성강 선거구 신승훈	제266호 월천 선거구 최 강	제367호 미곡 선거구 송윤희	제468호 노화 선거구 김동춘	제562호 서흥 선거구 김동춘	제656호 삼수 선거구 김동춘
제64호 려포 선거구 홍신숙	제165호 봉화산 선거구 서경준	제267호 삼성 선거구 전영선	제368호 신경 선거구 강하국	제469호 부막 선거구 김광일	제563호 삼호 선거구 차경일	제657호 항구 선거구 강양모
제65호 능금 선거구 리창식	제166호 금강산 선거구 김성희	제268호 삼암 선거구 강원준	제369호 광성 선거구 황병학	제470호 갈마 선거구 김윤혁	제564호 흥원 선거구 최복순	제658호 후포 선거구 한광복
제66호 형제 선거구 최철중	제167호 새덕 선거구 최영일	제269호 파산 선거구 제명철	제370호 정방 선거구 황병학	제471호 갈마 선거구 최학철	제565호 산양 선거구 홍철근	제659호 문예 선거구 김경옥
제67호 화강 선거구 최희중	제168호 석수 선거구 최영일	제270호 화원 선거구 차승수	제371호 윤하 선거구 제명환	제472호 문평 선거구 지종만	제566호 운포 선거구 최귀현	제660호 건국 선거구 리재원
제68호 형산 선거구 김경숙	제169호 려포 선거구 박봉주	제271호 초장 선거구 김제성	제372호 구천 선거구 김제성	제473호 옥평 선거구 김정식	제567호 덕성 선거구 김성룡	제661호 무사 선거구 하용철
제69호 신미 선거구 김봉철	제170호 제약 선거구 최 휘	제272호 오원 선거구 김인순	제373호 송림 선거구 윤제철	제474호 현내 선거구 김동룡	제568호 장흥 선거구 김성룡	제662호 라우도 선거구 리기춘
제70호 순안 선거구 장기성	제171호 수복 선거구 송창호	제273호 대오 선거구 정경선	제374호 석탑 선거구 김승철	제475호 화라 선거구 김진규	제569호 북청 선거구 김진규	제663호 남산 선거구 김득삼
제71호 석박 선거구 정명철	제172호 직동 선거구 최지선	제274호 보석 선거구 최광철	제375호 당산 선거구 최광철	제476호 안변 선거구 한병만	제570호 신창 선거구 정덕영	제664호 대대 선거구 강능수
제72호 삼석 선거구 김병철	제173호 룡악 선거구 최지선	제275호 박천 선거구 김철철	제376개 개성 선거구 최광철	제477호 안변 선거구 김영식	제571호 신북청 선거구 강종호	제665호 감천 선거구 독고창국
제73호 도덕 선거구 김영춘	제174호 덕천 선거구 김철중	제276호 덕담 선거구 류정국	제377호 동원 선거구 최광철	제478호 고산 선거구 허성일	제572호 청흥 선거구 허명옥	제666호 강서 선거구 김영성
제74호 강남 선거구 호호남	제175호 공원 선거구 로홍세	제277호 맹중 선거구 전경남	제378호 선죽 선거구 리중혁	제479호 부평 선거구 정 해	제573호 리원 선거구 고선옥	제667호 서학 선거구 정명조
제75호 영진 선거구 리현철	제176호 공원 선거구 리영철	제278호 평원 선거구 김금실	제379호 운학 선거구 방장수	제480호 부평 선거구 손금열	제574호 라흥 선거구 한정민	제668호 청산 선거구 윤춘화
제76호 양동 선거구 조춘봉	제177호 청송 선거구 홍인범	제279호 남원 선거구 김정민	제380호 덕암 선거구 정경남	제481호 룡천 선거구 오강철	제575호 체중 선거구 김경준	제669호 서기 선거구 리광철
제77호 봉화 선거구 김영애	제178호 상덕 선거구 최광진	제280호 구장 선거구 김희택	제381호 평화 선거구 김성희	제482호 송진 선거구 윤용일	제576호 허천 선거구 신병강	제670호 덕흥 선거구 류미영
제78호 삼동 선거구 김홍오	제179호 장상 선거구 현운실	제281호 통동 선거구 김영성	제382호 봉산 선거구 김길중	제483호 고성 선거구 김인복	제577호 신흥 선거구 장광국	제671호 삼지마 선거구 전영일
제79호 하리 선거구 김창식	제180호 대동 선거구 홍광숙	제282호 풍문 선거구 리경진	제383호 개포 선거구 리경진	제484호 운정 선거구 박명국	제578호 상농 선거구 최인호	제672호 강선 선거구 김형남
제80호 흑명 선거구 김보훈	제181호 시정 선거구 김혜란	제283호 수주 선거구 정리중	제384호 황주 선거구 진승남	제485호 금강 선거구 강수린	제579호 금호 선거구 리세진	제673호 북봉 선거구 전승훈
제81호 문화 선거구 리만성	제182호 연곡 선거구 리봉남	제284호 함성 선거구 전형중	제385호 청룡 선거구 리철호	제486호 속사 선거구 계훈녀	제580호 라남 선거구 오세판	제674호 화석 선거구 김경옥
제82호 평성 선거구 리명학	제183호 증산 선거구 신오순	제285호 태평 선거구 김경희	제386호 속사 선거구 김철국	제487호 창도 선거구 박근광	제581호 라북 선거구 최석환	제675호 대안 선거구 양승호
제83호 은덕 선거구 안명옥	제184호 방제 선거구 한 철	제286호 운산 선거구 김영춘	제387호 흑곡 선거구 김영춘	제488호 화원 선거구 김동진	제582호 남청 선거구 김성룡	제676호 옥수 선거구 윤향실
제84호 오리 선거구 강석주	제185호 풍정 선거구 김중현	제287호 풍양 선거구 리철진	제388호 연란 선거구 리중혁	제489호 성산 선거구 김준기	제583호 부운 선거구 김성관	제677호 풍강 선거구 안종실
제85호 삼화 선거구 로두철	제186호 평원 선거구 김중현	제288호 동양 선거구 김창룡	제389호 미산 선거구 리영식	제490호 회양 선거구 문영철	제584호 송평 선거구 서영학	제678호 옥도 선거구 황순희
제86호 구월 선거구 윤윤남	제187호 원화 선거구 마원춘	제289호 태천 선거구 오혜선	제390호 봉산 선거구 김희택	제491호 세포 선거구 황 민	제585호 사봉 선거구 김광남	제679호 은천 선거구 김철만
제87호 육전 선거구 박길남	제188호 이파 선거구 마원춘	제290호 은흥 선거구 허				

민족단합은 통일위업승리의 강력한 무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범됨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섬으로써 올해에 자주통일과 평화변명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것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지금 온 겨레는 절세위인의 승고한 애국애족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동족대결의 불미스러운 력사에 중지부를 찍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으로 조국통일의 밝은 앞날을 펼쳐나갈 확고한 신심과 의지에 넘쳐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고있다.

우리 민족이 불신과 대결을 끝장내고 자주통일과 평화변명을 이룩하자면 민족단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고 조국분열은 곧 배국입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든 남에 있든 해외에 있든 누구나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승고한 애국애족의 리범을 받들어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끝까지 떨쳐나서야 합니다.》

민족의 단합은 조국통일운동의 본성적요구이다. 사상과 주의,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정도에 관계없이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면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 북과 남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것은 조국통일위업의 주요과제인 동시에 최중요적이기도 하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민족적단합을 공동의 투쟁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모든것을 지향시켜야 한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단합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공동의 리익은 조국통일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있을 수 없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계급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민족공동의 리익보다 더 클수 없다. 민족을 떠난 계급과 계층이 있을수 없는것만큼 민족공동의 리익을 옹호하여야 할 때 민족성원들의 존엄과 리익도 지킬수 있다.

민족의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사상과 계급의 차이를 절대시한다면 언제 가도 민족의 단합을 이룩할수 없다. 조국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진실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협소한 대결관념을 버려야 하며 개별적인 주의주장이나 당리당략의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민족의 리익을 우선시하고 옹호하여야 한다.

모든것을 민족공동의 리익에 복종시켜나가자면 우리 민족끼리의 힘장대 서야 한다. 우리민족끼리리범됨은 그 어떤 추상적인 리념도, 그 누구의 일방적인 주장도 아니다. 그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것으로서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사상과 계급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합심하게 하는 정신적의 원천이다. 우리 민족끼리에 단합도 있으며 통일도 있다. 조국통일과 이 땅의 영원한 평화, 민족의 밝은 앞날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우리 민족끼리보다 더 위대한 무기는 없다. 우리 민족끼리의 힘장대 든든히 서서 민족공동의 리익을 우선시하며 그 실현에 모든것을 복종시켜갈 때 민족적단합은 자연히 이루어지게 될것이다.

해외외의 각계층의 배양과 접촉은 민족적단합을 적극 추동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동족간의 부단한 배양과 접촉은 호상 리해와 친밀감을 두터이하고 대결과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서로 배양하고 접촉하며 통일애국의 길에서 련대협력을 강화해나갈 때 리해와 신뢰는 두터워질것이며 화해와 협력 이 추동되게 될것이다.

6.15 공동선언발표이후 각계층의 배양과 접촉으로 통일운동이 활성화되고 삼천리강토에 자주통일의 열풍이 불아왔다는 그 명백한 실증으로 본다.

자주통일, 평화변명의 길을 활짝 열어 나가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동포들이 배양과 접촉, 대화와 련대협력을 적극 실현해나가야 한다. 우리 겨레는 배양과 접촉을 통하여 화해와 협력에 유익한것은 서로 편견없이 지지하고 성원하며 민족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뜻을 합쳐나가야 한다.

광범한 인민들의 통일론의와 활동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거족적인 승리를 떠는 조국통일운동은 그 주체인 온 겨레가 적극 참가하여 힘과 지혜, 열정을 하나로 합칠것을 요

구하고있다. 조국통일운동은 전민족적인 애국위업이다. 그러므로 하여 통일애국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국통일운동에 참가할수 있다. 통일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북과 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도 제대로 진행될수 있고 자주통일운동이 힘차게 벌어질수 있다.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조국통일운동에 엄중한 지해를 주는 온갖 장애물들을 과감히 제거하여 조국통일의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갈라져 살았는것만도 가슴아픈 일인데 동족끼리 비방하고 반목시하는것은 참을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쏘는 일이다. 백해무익한 비방증상과 무분별한 전쟁연습을 비롯하여 민족적화해와 단합에 지해를 주는 행위들은 더이상 용납될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민족적화해와 단합으로 자주통일, 평화변명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한 의지이다.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가것이라는 우리의 힘장대 시종일관한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 친필을 남기신 20년이 되는 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애국애족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자주통일, 평화변명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해야 할것이다.

허영민

자주통일이 애국애족을 밝히는 등대

공명정대한 통일방안

남조선의 한 통일운동단체의 성원은 어느 한 모임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통일방안들은 모두 다 애국애족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안들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은

위대한 설계도

의 총적목표와 통일국가의 미래를 한결 리상상으로 그려 나가는 리범됨을 보여주는 위대한 설계도이다. 우리 이념의 각계 민중이 조국통일 3대원칙을 사상과 리념, 신앙과 계급의 차이를

불멸의 기치

고려대학교의 한 학생은 동료들에게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탁월한 통일방안이 절대정당 조국통일 3대원칙이말로 통일 의 앞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기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 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

대양 절경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꽃바구니전경과 당대회, 사전 및 도사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양 절경

태양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 결성 준비위원회가 2월 27일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는 민족화해의 명 도사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양 절경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꽃바구니전경과 당대회, 사전 및 도사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양 절경

태양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 결성 준비위원회가 2월 27일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는 민족화해의 명 도사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양 절경

태양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 결성 준비위원회가 2월 27일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는 민족화해의 명 도사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양 절경

태양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 결성 준비위원회가 2월 27일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는 민족화해의 명 도사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양 절경

태양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 결성 준비위원회가 2월 27일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는 민족화해의 명 도사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양 절경

태양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 결성 준비위원회가 2월 27일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는 민족화해의 명 도사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양 절경

태양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 결성 준비위원회가 2월 27일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는 민족화해의 명 도사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양 절경

태양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 결성 준비위원회가 2월 27일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는 민족화해의 명 도사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양 절경

태양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 결성 준비위원회가 2월 27일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는 민족화해의 명 도사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당국자들은 기회를 때 때다 《신뢰조성》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기초를 쌓아야 한다고 요란스럽게 웨쳐대고있다.

지난 2월 14일에 있었던 북남고위급접촉때에도 남조선당국은 《신뢰조성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증상을 완전히 중지할때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온 겨레앞에서 리행을 엄숙히 다짐하였다.

신뢰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며 그것은 약속을 지키는것으로 더욱 깊어지는 법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과 그에 추종하는 보수언론의 우리에 대한 비방과 증상은 북남고위급접촉에서 이룩한 합의에 관계없이 더욱더 악랄하게 벌어지고있다.

당국자들이 공개석상에서 나라내 공공연설을 할때마다 언변과 언사들이 그에 맞장구를 치며 추추어대고 인간쓰레기들이 군사적비호까지 받으면서 기세를 올리고 반공화국베라살로 연을 올리고있는것이 오늘 의 엄연한 현실이다.

이제는 동족비방과 증상이 도수를 넘어 우리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까지 함포로 헬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 선거가 진행되기 전부터 많은 《투표소》들에서 《평정히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술한 군병들이 순찰과 경비를 강화하여 총부리를 겨누고있기때문에 마치 선거투표가 공포에 질려 할수없이 현상저항하는것처럼 할수없어진

대대표적인 실례이다.

지어 100% 투표, 100% 찬성이 라는 결과까지 《의심이 간다.》고 걸고드는 등 적대감이 팔수에 배지 않았다는 꾸며낼수 없고 병적거부자 이 체질화한자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정도로 비방과 증상은 최고에 치여 돌아치고있다.

우리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로 말하면 천만군민이 평도자의 두리에 굳게 일심단결된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만천하에 힘있게 표시하는 또 하나의 계기이다.

나라마다 선거가 있지만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포함한 모든 공민들이 정권의 선거, 정치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귀중한 자기 주권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정을 안고 충성의 한표, 애국의 한표를 바치는것이 바로 우리의 선거이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증상에 도 정도가 있고 날조와 모략에도 분별이 있어야 한다.

사실 남조선당국은 선거에 대해 이론적저러를 남을 시비할 초보적인 체면도, 자격도 없다.

선거때마다 만사함을 경악시키는 형형색색의 부정행위가 판을 치고 그

것으로 세상사람들의 폭소를 자아내고있는 곳이 다름아닌 남조선명이다. 금전과 퇴물로 자리다툼을 하는것과 같은 온갖 추태도 모자라 《영적 댓글사건》, 《관련 댓글사건》과 같은 사상조류의 사건들까지 판무하는 남조선의 선거는 그야말로 마왕의 연속으로 이어지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덮어두고 마치 저들의 선거가 《현력을 재생산, 교해하는 다원주의》이고 《민주주의의 꽃》이나 되는것이 미화 분신해대고있다.

아쉬워가는 시국상에서 향기로운 장미꽃이 피어나고 우겨내는데야.

문제의 심각성은 반공화국비방증상의 리범됨이 엄중한 기로에 놓여있고 대 판편하여 북남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힘장을 밝히지 않았음이다.

1. 남조선당국자들부터가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 북남고위급접촉함의에도 아랑곳없이 비방증상의 선두에 서있는 것이 남조선당국자들이다.

외교부 장관이라는 자는 우리가 대 화공세를 펴고있지만 실례로서 함포 군사연습증단을 요구하는 등 《합

에 여념이 없고》 《아무런 변화와 직입도 없다.》는 심히 자국적이고 오만무례한 수작질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 역시 동족비방에 환창이 된 나머지 우리가 그 무슨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국 물도 없다.》는 치사하고 역겨운 망 말도 우리 군대와 인민을 격분시키고 있다.

집권자의 못된 발언은 더 의외를 지어 주고있다.

정수리에 부은 더러운 구정물이 발 뒤꿈치까지 내려간다는 말이 있다. 남조선정권을 반공화국비방증상의 도가니로 만들려고 펴고있었는것이 바로 당국의 대북판편 부처 장관들의 못된 허바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하의 모든 선과 악이 혀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진정으로 북남관계의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국자들부터가 모든 제반의 최근인 일을 다르고 함포로 혀를 놀리지 말아야 한다.

2. 남조선의 보수언론매체들도 제멋대로 놀이지 말아야 할것이다.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이 소중하다면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한다

북남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담화

세상에서 으뜸가는 우리의 사회주의에 대한 열렬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각자의 맑은 청소년학생들이 부모들과 힘을 합쳐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많은 지원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어 돌격대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애국심은 주체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이며 참된 애국행위의 요람인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빛내이라는 불라는 마음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대학 부 학성 장미는 귀국에 들려 주신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은정에 보답할 한마음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대학에 모신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이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한다

북남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담화

세상에서 으뜸가는 우리의 사회주의에 대한 열렬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각자의 맑은 청소년학생들이 부모들과 힘을 합쳐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많은 지원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어 돌격대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애국심은 주체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이며 참된 애국행위의 요람인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빛내이라는 불라는 마음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대학 부 학성 장미는 귀국에 들려 주신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은정에 보답할 한마음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대학에 모신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이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한다

북남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담화

세상에서 으뜸가는 우리의 사회주의에 대한 열렬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각자의 맑은 청소년학생들이 부모들과 힘을 합쳐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많은 지원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어 돌격대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애국심은 주체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이며 참된 애국행위의 요람인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빛내이라는 불라는 마음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대학 부 학성 장미는 귀국에 들려 주신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은정에 보답할 한마음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대학에 모신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이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한다

북남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담화

세상에서 으뜸가는 우리의 사회주의에 대한 열렬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각자의 맑은 청소년학생들이 부모들과 힘을 합쳐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많은 지원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어 돌격대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애국심은 주체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이며 참된 애국행위의 요람인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빛내이라는 불라는 마음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대학 부 학성 장미는 귀국에 들려 주신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은정에 보답할 한마음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대학에 모신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이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한다

북남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담화

세상에서 으뜸가는 우리의 사회주의에 대한 열렬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각자의 맑은 청소년학생들이 부모들과 힘을 합쳐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많은 지원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어 돌격대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애국심은 주체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이며 참된 애국행위의 요람인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빛내이라는 불라는 마음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대학 부 학성 장미는 귀국에 들려 주신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은정에 보답할 한마음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대학에 모신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이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한다

북남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담화

세상에서 으뜸가는 우리의 사회주의에 대한 열렬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각자의 맑은 청소년학생들이 부모들과 힘을 합쳐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많은 지원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어 돌격대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애국심은 주체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이며 참된 애국행위의 요람인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빛내이라는 불라는 마음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대학 부 학성 장미는 귀국에 들려 주신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은정에 보답할 한마음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대학에 모신

제29차 김일성종합대학교 학기 기술축전 개막

제29차 김일성종합대학교 학기 기술축전이 개막되었다.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받들고 대학의 교원, 연구사, 박사생들은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290여

제29차 김일성종합대학교 학기 기술축전 개막

건의 성과자들을 축전에 제출하였다.

이번 축전에서는 선행부문, 기초 및 첨단과 학부본 등의 과학기술성과로 13개의 분과로 나뉘어 발표되며 대학에서 개발한 새 기술에 대한 보고서도 있게 된다.

11일에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교

제29차 김일성종합대학교 학기 기술축전 개막

교육사 태형철이 개막사를 하였다.

그는 모든 교원, 연구사들이 축전을 통하여 가져오는 연구성과와 경험을 소개하고 현실에 맞게 도입하며 대학의 과학연구 사업을 한단계 끌어올릴데 대하여 말하였다.

개막식에 이어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돌아보았다.

제29차 김일성종합대학교 학기 기술축전 개막

건의 성과자들을 축전에 제출하였다.

이번 축전에서는 선행부문, 기초 및 첨단과 학부본 등의 과학기술성과로 13개의 분과로 나뉘어 발표되며 대학에서 개발한 새 기술에 대한 보고서도 있게 된다.

11일에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교

제29차 김일성종합대학교 학기 기술축전 개막

건의 성과자들을 축전에 제출하였다.

이번 축전에서는 선행부문, 기초 및 첨단과 학부본 등의 과학기술성과로 13개의 분과로 나뉘어 발표되며 대학에서 개발한 새 기술에 대한 보고서도 있게 된다.

11일에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교

제29차 김일성종합대학교 학기 기술축전 개막

건의 성과자들을 축전에 제출하였다.

이번 축전에서는 선행부문, 기초 및 첨단과 학부본 등의 과학기술성과로 13개의 분과로 나뉘어 발표되며 대학에서 개발한 새 기술에 대한 보고서도 있게 된다.

11일에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가

감보자 신임 특명전권대사와 수리아림시 대리대를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는 11일 의례문화하여 온 씨씨와다 주조 감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가

감보자 신임 특명전권대사와 수리아림시 대리대를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는 11일 의례문화하여 온 씨씨와다 주조 감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가

감보자 신임 특명전권대사와 수리아림시 대리대를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는 11일 의례문화하여 온 씨씨와다 주조 감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가

감보자 신임 특명전권대사와 수리아림시 대리대를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는 11일 의례문화하여 온 씨씨와다 주조 감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가

감보자 신임 특명전권대사와 수리아림시 대리대를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는 11일 의례문화하여 온 씨씨와다 주조 감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가

감보자 신임 특명전권대사와 수리아림시 대리대를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는 11일 의례문화하여 온 씨씨와다 주조 감보자

2014년 몽골국제 공개 자유형 레슬링경기 대회에 참가 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몽골의 울란바타르에서 진행된 2014년 몽골국제 공개 자유형 레슬링경기 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11일 귀국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10개 나라의 우수한 남자선수들 160여명이 참가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1일에 진행된 경기들에서 강한 정신력과 높은 기술을 발휘하여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쟁취하였다.

전향남선수는 자기의 특기인 받돋작기 등을 능숙히 활용하여 여자자유형체량 48kg급 경기에서, 한금옥선수는 다양한 기술수법과 풍부한 경기경

2014년 몽골국제 공개 자유형 레슬링경기 대회에 참가 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몽골의 울란바타르에서 진행된 2014년 몽골국제 공개 자유형 레슬링경기 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11일 귀국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10개 나라의 우수한 남자선수들 160여명이 참가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1일에 진행된 경기들에서 강한 정신력과 높은 기술을 발휘하여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쟁취하였다.

전향남선수는 자기의 특기인 받돋작기 등을 능숙히 활용하여 여자자유형체량 48kg급 경기에서, 한금옥선수는 다양한 기술수법과 풍부한 경기경

2014년 몽골국제 공개 자유형 레슬링경기 대회에 참가 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몽골의 울란바타르에서 진행된 2014년 몽골국제 공개 자유형 레슬링경기 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11일 귀국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10개 나라의 우수한 남자선수들 160여명이 참가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1일에 진행된 경기들에서 강한 정신력과 높은 기술을 발휘하여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쟁취하였다.

전향남선수는 자기의 특기인 받돋작기 등을 능숙히 활용하여 여자자유형체량 48kg급 경기에서, 한금옥선수는 다양한 기술수법과 풍부한 경기경

2014년 몽골국제 공개 자유형 레슬링경기 대회에 참가 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몽골의 울란바타르에서 진행된 2014년 몽골국제 공개 자유형 레슬링경기 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11일 귀국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10개 나라의 우수한 남자선수들 160여명이 참가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1일에 진행된 경기들에서 강한 정신력과 높은 기술을 발휘하여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쟁취하였다.

전향남선수는 자기의 특기인 받돋작기 등을 능숙히 활용하여 여자자유형체량 48kg급 경기에서, 한금옥선수는 다양한 기술수법과 풍부한 경기경

2014년 몽골국제 공개 자유형 레슬링경기 대회에 참가 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몽골의 울란바타르에서 진행된 2014년 몽골국제 공개 자유형 레슬링경기 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11일 귀국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10개 나라의 우수한 남자선수들 160여명이 참가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1일에 진행된 경기들에서 강한 정신력과 높은 기술을 발휘하여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쟁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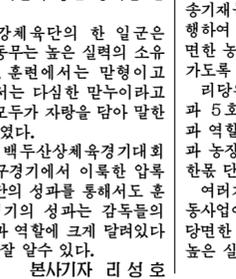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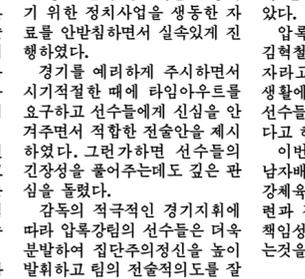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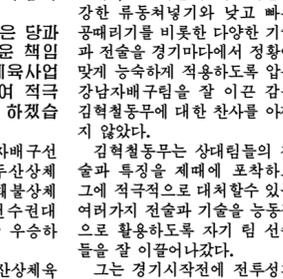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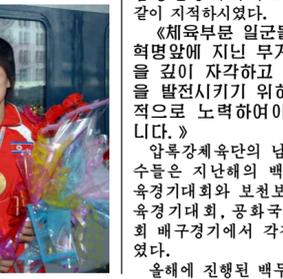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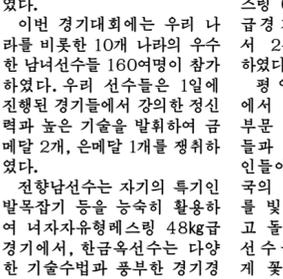
전향남선수는 자기의 특기인 받돋작기 등을 능숙히 활용하여 여자자유형체량 48kg급 경기에서, 한금옥선수는 다양한 기술수법과 풍부한 경기경

2014년 몽골국제 공개 자유형 레슬링경기 대회에 참가 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몽골의 울란바타르에서 진행된 2014년 몽골국제 공개 자유형 레슬링경기 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11일 귀국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10개 나라의 우수한 남자선수들 160여명이 참가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1일에 진행된 경기들에서 강한 정신력과 높은 기술을 발휘하여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쟁취하였다.

전향남선수는 자기의 특기인 받돋작기 등을 능숙히 활용하여 여자자유형체량 48kg급 경기에서, 한금옥선수는 다양한 기술수법과 풍부한 경기경



다양한 선동 방법을 활용하여

신천군 발산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동맹원들의 정신력을 북돋아주기 위한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적극 벌리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해설담화, 직판선동, 방송선동과 포전방 송기계를 통한 선동을 적극 진행하여 당원들과 동맹원들이 당면한 농사일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도록 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선동원들과 5호당원선동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그들이 당원들과 동맹원들의 정신력발달에서 한몫 단단히 하도록 하고있다.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선 동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속에 당면한 영농전투에서는 남다른 높은 실적이 이룩되고있다.

로동신문원 정연화

다양한 선동 방법을 활용하여

신천군 발산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동맹원들의 정신력을 북돋아주기 위한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적극 벌리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해설담화, 직판선동, 방송선동과 포전방 송기계를 통한 선동을 적극 진행하여 당원들과 동맹원들이 당면한 농사일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도록 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선동원들과 5호당원선동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그들이 당원들과 동맹원들의 정신력발달에서 한몫 단단히 하도록 하고있다.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선 동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속에 당면한 영농전투에서는 남다른 높은 실적이 이룩되고있다.

로동신문원 정연화

다양한 선동 방법을 활용하여

신천군 발산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동맹원들의 정신력을 북돋아주기 위한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적극 벌리고있다.

리

미국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하는 화근

얼마전 미국이 무력충격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해외에 배치되어있는 미군병력수를 현재의 52만명에서 44만~45만명규모로 축소하게 된다고 한다.

앞으로 세계적판도에서 병력축감에 따른 미군재편성이 진행되게 된다. 기본방향은 유럽과 중동지역의 미군을 줄이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병력은 분산 및 재배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다. 바로 남조선간첩 미군이다. 이번에 미국방성 부장판데리 폭스는 《병력축감계획이 남조선에 대한 우리의 주요공약 조항과 조인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무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것은 남조선간첩 미군의 축감이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미국방성의 고위인물이 병력축감계획에 남조선간첩 미군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식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질적으로 미국은 남조선에서 무력을 축감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중화하며 하고 있다. 지난해 미제 23만 화해대과 육군 제6기병사단 제4공작집중정찰대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미국은 올해안으로 군사분계선 가까이 병력을 증강하고 신형무기를 배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무력충감이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을 막고 《평화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요컨대 남조선에서 《역제》와 《양어》를 위한 것이라는데 있다. 또 이와 하여 남조선에서 《안정적 보장》될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이다. 이것은 완전히 거짓이다.

미국은 결코 《양어》나 《평화 보장》을 위해 대양진군에 남조선에 거는 것이 아니다. 남조선간첩 미군은 평화의 파괴자이며 전쟁의 군인이다.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민족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것도, 조선반

도가 항시적인 전쟁위협이 떠도는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된 것도 다 미국의 남조선간첩에 있다.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 때부터 우리 인민은 어느 한순간도 전쟁위협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그것은 남조선을 남당도적으로 가로막고있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집어삼키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제패망후 일본군의 무장해체를 구실로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은 1949년 4월 초에 대해 광고하였으나 《군사고문단》의 명목으로 계속 남아있었으며 그들은 남조선전쟁을 도발하는 데서 주역이 되었다. 전후 남조선간첩 미군은 정전협정을 세계적으로 파괴유린하면서 남조선도정세를 인위적으로 긴장시켜왔다. 그들은 남조선에 대륙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도발을 일삼으며 적대적대치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

남조선간첩 미군은 1957년 6월 남조선의 로부터 작전물자반입을 금지하고 그 시행을 중립국감동위원회와 중립국시찰소조가 감시하도록 규정한 정전협정항목의 파괴를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아무런 제한도 받지 없이 현대적인 군사장비들과 작전물자들을 마음대로 남조선에 끌어들이었다. 이것은 군비경쟁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간첩 미군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사건을 끊임없이 일으키면서 정세로의 악화로 악화시키고 우리 공화국을 계속 위협하였다.

1976년 8월 판문점사건, 1994년 12월 직속기사건 등은 미강점군이 조인반도정세를 전쟁경계로 이끌어가기 위해 고의적으로 일으킨 대륙적사건들이다. 남조선간첩 미군의 침략적, 반평화적 성격은 그들이 북침전쟁계획에 따라 광도와 하와이, 일본 태평양지역에 배비된 해상 및 공중 타격부대의 증원에도 해안상륙, 중심

타격, 점령지역정점 등 실천연습을 맹렬히 벌리고있는데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남조선에서는 어느 하루도 이름만 바꾸면서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는 남조선전쟁이 그친 적이 없다. 전후에 들어와서만도 《F-2》, 《F-22》, 《스텔스 전투기》, 《F-35》, 《스텔스 전투기》, 《F-22》, 《이그노우블》 등 최첨단 핵무장장비들을 남조선에 계획적으로 투입하여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여왔다. 문제는 이러한 전쟁장비들의 작전반경이 조인반도경역을 벗어난다는 것이다. 《F-22》스텔스 전투기만 보아도 그 작전반경은 2000km가 넘는다. 《B-52》폭격기는 6400km이상의 거리를 날아가 폭격한 후 돌아올 수 있는 장거리폭격기로 알려졌다. 이것은 남조선간첩 미군의 작전범위가 조인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미국은 남조선간첩 미군의 기동타격력과 원거리작전능력을 강화하고 절대적인 군사적우세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대륙으로 진출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주변나라들의 응당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조선간첩 미군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힘으로, 군사적으로 담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남조선간첩이 조인반도에서 첩에 대한 군사적대치상태를 초래하고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미국이 남조선간첩은 조선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에도 커다란 위협으로 된다. 지금 미국은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대륙침략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은 북침전쟁이다. 이것은 절대적인 군사적우세로 도전하는 세력들을 제압하고 패권을 틀어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미국이 잠재적적수로 여기는 대국들이 있다. 미국은 바로 이런 잠재적적수들을 누르고 군사적우위, 전략적우위를 보장하는 기본전략을 남조선간첩 미군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미국은 남조선간첩 미군을 질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각종 최첨단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이것들은 다 산

제공격수단들이다. 남조선간첩 미군의 선제공격능력을 높이는 자는 것이다.

미국은 해마다 남조선에서 전쟁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술한 전쟁장비들을 투입하여 남조선간첩 미군을 여기에 속달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도 핵항공모함전함단과 핵전략폭격기 《B-52》, 스텔스 전투기 《B-2A》, 스텔스 전투기 《F-22》, 이지스 구축함 등 최첨단 핵무장장비들을 남조선에 계획적으로 투입하여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여왔다. 문제는 이러한 전쟁장비들의 작전반경이 조인반도경역을 벗어난다는 것이다. 《F-22》스텔스 전투기만 보아도 그 작전반경은 2000km가 넘는다. 《B-52》폭격기는 6400km이상의 거리를 날아가 폭격한 후 돌아올 수 있는 장거리폭격기로 알려졌다. 이것은 남조선간첩 미군의 작전범위가 조인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미국은 남조선간첩 미군의 기동타격력과 원거리작전능력을 강화하고 절대적인 군사적우세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대륙으로 진출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주변나라들의 응당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이 남조선에 계속 남아있는 조인에서 조인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말하는 것은 미발공부에 지나지 않는다. 조인반도에서 남조선간첩 미군은 전쟁의 발화점으로 되고 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와 미국은 교전관계에 있다. 현재 남조선간첩 미군은 계획적으로 전개되어 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조선간첩 미군의 사소한 도발도 전면전쟁으로 접사리 번질 수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그것은 조인반도에만 국한되지 않게 되며 주변나라들도 말려들지 않을 수 없다. 현실은 바로 이렇다.

여 리 나 라 정 당 , 단 체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 구채

쓰르비아의 세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이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에대한 위협을 초월한 것이라면서, 특히 싸우는 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 것이다.

성명은 이번 군사연습을 방대한 무력이 참가하는 핵전쟁연습으로 막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키 리졸》,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파란시키고 조인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또 다시 엄청난 난관을 조성하였다.

력사적으로 미국은 세계적판도에서 민주주의와 평화, 안정을 파괴하고 민족분열과 인종차별을 일삼아온 최대의 범죄국가이다. 미제는 조인을 분할시키고 1950년 조인전쟁을 도발하였으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공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며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이는 핵전쟁수단을 철수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리 학 남

인민이 경계하는 규정은 동지의 명도말에 미제의 압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루어야 하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

또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 것이다.

세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은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에 대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인반도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적극 지지할 것을 호소한다.

오스트리아 조선의 평화화정협정을 위한 로즈린들의 연대성원위원회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키 리졸》,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4일 오스트리아주재 미국대사관과 남조선대사관에 각각 항의서신을 보내었다.

편지들은 《키 리졸》,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을 규탄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무분별한 불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는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며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이는 핵전쟁수단을 철수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공관 리 상 룡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의 로켓발사를 계기로 잊지도 않는 핵 및 미사일《위협》설을 더욱 어지럽게 퍼뜨리고 있다.

최근 미공화당의 다음이 대통령후보로 물망에 오르긴은 국화살인 의인 루비오는 미국이 전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또 다시 경고하였다. 그는 조선은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10년 뒤에는 캘리포니아주나 미국 본토 서부해안을 《핵무기로 폭격할 것》이라는 제나를 대로의 소리를 늘어놓았다.

이미 미국은 이번에 우리의 로켓발사후련의 《위협성》을 부각시켜보려 한 것 같은데 그대도 앞뒤가 맞게 말을 해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초기에 미국은 우리의 로켓발사후련에 대하여 《위협》이라고 불수 없다. 그대법 현연한데 하였어. 그후에 우리의 주변나라에서 진행된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에 대하여서도 저들도 대륙간탄도미사일들과 유사함탄도미사일들의 시험을 일삼고 있다고 하면서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10년 뒤에는 캘리포니아주나 미국 본토 서부해안을 《핵무기로 폭격할 것》이라는 제나를 대로의 소리를 늘어놓았다.

미국이 우리의 정상적인 로켓발사후련을 《도발》로 경고한다면 이는 본토에 대한 《핵폭격》설까지 류포시키는 데는 응용한 기도가 갈라 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이 골수에 밴 미국의 악의에 찬 비난을 우리 로켓들이 대지를 박차고 하늘높이 솟아오르는 장쾌한 모습에 대한 단순한 심술로만 볼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자주력과 사회주의의 위대한 생활력, 종합적국력에도 겁을 먹은 자들의 치졸한 시샘일이며 최후발악이다.

지금 우리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은 단숨에의 강진으로 착각 실현되어가고 있다. 가까운 년간에 강위력한 자위적핵억제력에 토대하여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려는 문명국을 건설하려는 찬란한 민의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강성국가건설에로 내달리는 주체조선의 힘찬 발걸음,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선의 현실은 세인을 경탄케 하고 있다.

강성국가행마우에 우리 공화국이 올라서는 것을 악몽으로 여기고있는 자들, 조선의 현실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는 자들은 이에 전철을 하고 있다. 미국이 발작을 일으키는 것은 그때문이다.

미국이 우리의 거대한 진군을 막아보려고 아무런 허는 나발을 쉼체도 우리는 거기에 개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길로 곧바로 나아갈 것이다. 몇발의 로켓발사에 흥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가 그보다 더 위력한 미사일을 쏘아도 할 말이 없게 되어 있다.

핵무기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미국은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시비하지 말라

미국이 거꾸로 《위협》에 대하여 운운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미국에 대고 할 소리이다.

지금 미국이 남조선정세에 감행하고있는 전쟁연습소동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그들은 처음에 합동군사연습에 핵탄두수단들이 투입되지 않았을 것이며 페련에 비해 연습의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던 미국이 핵무기를 탑재한 핵추진잠수함 《콜롬비아》호를 참가시키고 《북의 핵실험》을 타격할 수 있다고 내놓고 떠들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공공연한 위협행위이다.

미국이 우리의 정상적인 로켓발사후련을 《도발》로 경고한다면 이는 본토에 대한 《핵폭격》설까지 류포시키는 데는 응용한 기도가 갈라 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이 골수에 밴 미국의 악의에 찬 비난을 우리 로켓들이 대지를 박차고 하늘높이 솟아오르는 장쾌한 모습에 대한 단순한 심술로만 볼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자주력과 사회주의의 위대한 생활력, 종합적국력에도 겁을 먹은 자들의 치졸한 시샘일이며 최후발악이다.

지금 우리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은 단숨에의 강진으로 착각 실현되어가고 있다. 가까운 년간에 강위력한 자위적핵억제력에 토대하여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려는 문명국을 건설하려는 찬란한 민의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강성국가건설에로 내달리는 주체조선의 힘찬 발걸음,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선의 현실은 세인을 경탄케 하고 있다.

강성국가행마우에 우리 공화국이 올라서는 것을 악몽으로 여기고있는 자들, 조선의 현실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는 자들은 이에 전철을 하고 있다. 미국이 발작을 일으키는 것은 그때문이다.

미국이 우리의 거대한 진군을 막아보려고 아무런 허는 나발을 쉼체도 우리는 거기에 개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길로 곧바로 나아갈 것이다. 몇발의 로켓발사에 흥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가 그보다 더 위력한 미사일을 쏘아도 할 말이 없게 되어 있다.

핵무기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미국은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북핵위협》은 양키들의 창작품

미제양키들이 핵전쟁소동인 《키 리졸》,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연방 벌려놓으면서도 도리어 제련에서 《북핵위협》을 떠들고있으니 정말 치솟는 격분을 금할수 없다.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있는 것도 미제이고 인류에게 최초로 핵잠화를 입힌 것도 양키들이다.

우리를 무장해제시킬 어리석은 꿈을 꾸는 미국놈들을 속시원히 담겨서 우리 혁명무력의 본래를 보이실것이지 우리 인민군권사들의 한결같은 소원이다.

우리가 수심년동안 미국의 핵위협을 얼마나 많이 받으며 살아왔는가. 또 미국의 야만적인 괴뢰인압과 경제봉쇄로 우리가 얼마나 허리머를 조이며 생활해 왔는가.

우리 나라의 그 어려운 속에

체질화된 약습부러 버려야 한다

미국이 우리의 정의로운 자위적후련을 시비하며 《도발》이요, 《제재》요 하면서 인에서 뭐가 나가는지 모르고 개나발을 불고있더니 격분을 금할수 없다.

아마도 미국은 남조선과 일본이 저들을 제재하고 우리와 접촉하는데 배대 배이 풀려서 한 나발을 불며 대서 치졸하게 놀아대고있는 것이다.

오늘 미국이 제야무리 《제재》와 《봉쇄》를 운운하여도 강성국가건설의 승리적전군로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힘찬 발걸음을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다.

지난 수십년동안 미국의 로골회화는 위협과 제재속에서 우리 인민은 견뎌내어 버려왔고 허리머를 조이며 살아보기도 하였어. 하지만 우리 공화국은 날로 로골회화는 미제의 괴뢰인압책동에 단호히 맞서 당당한 인공

대기오염을 가시기 위한 노력

중국에서 인개면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베이징과 천진시, 하북성과 그 주변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개면지발생은 사람들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현안을 일부 지역에서 찬풍기가 약화되고 바람이 적어지면서 대기속의 오염물질들이 흩어지지 못하는 동시에 땅결면의 공기습도가 급속히 높아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인개면지가 사람들의 건강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중국당과 정부는 인개면지에 의한 대기오염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들에서 비상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베이징, 천진시에서 주민들이 오염물질배출량을 극력 줄이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운행에 대한 통제도 엄격해지고 있다.

해당 부분과 단위들에서 자기

여 리 나 라 정 당 , 단 체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 구채

쓰르비아의 세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이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에대한 위협을 초월한 것이라면서, 특히 싸우는 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 것이다.

성명은 이번 군사연습을 방대한 무력이 참가하는 핵전쟁연습으로 막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키 리졸》,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파란시키고 조인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또 다시 엄청난 난관을 조성하였다.

력사적으로 미국은 세계적판도에서 민주주의와 평화, 안정을 파괴하고 민족분열과 인종차별을 일삼아온 최대의 범죄국가이다. 미제는 조인을 분할시키고 1950년 조인전쟁을 도발하였으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공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며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이는 핵전쟁수단을 철수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리 학 남

대기오염을 가시기 위한 노력

중국에서 인개면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베이징과 천진시, 하북성과 그 주변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개면지발생은 사람들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현안을 일부 지역에서 찬풍기가 약화되고 바람이 적어지면서 대기속의 오염물질들이 흩어지지 못하는 동시에 땅결면의 공기습도가 급속히 높아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인개면지가 사람들의 건강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중국당과 정부는 인개면지에 의한 대기오염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들에서 비상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베이징, 천진시에서 주민들이 오염물질배출량을 극력 줄이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운행에 대한 통제도 엄격해지고 있다.

해당 부분과 단위들에서 자기

여 리 나 라 정 당 , 단 체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 구채

쓰르비아의 세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이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에대한 위협을 초월한 것이라면서, 특히 싸우는 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 것이다.

성명은 이번 군사연습을 방대한 무력이 참가하는 핵전쟁연습으로 막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키 리졸》,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파란시키고 조인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또 다시 엄청난 난관을 조성하였다.

력사적으로 미국은 세계적판도에서 민주주의와 평화, 안정을 파괴하고 민족분열과 인종차별을 일삼아온 최대의 범죄국가이다. 미제는 조인을 분할시키고 1950년 조인전쟁을 도발하였으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공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며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이는 핵전쟁수단을 철수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리 학 남

대기오염을 가시기 위한 노력

중국에서 인개면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베이징과 천진시, 하북성과 그 주변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개면지발생은 사람들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현안을 일부 지역에서 찬풍기가 약화되고 바람이 적어지면서 대기속의 오염물질들이 흩어지지 못하는 동시에 땅결면의 공기습도가 급속히 높아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인개면지가 사람들의 건강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중국당과 정부는 인개면지에 의한 대기오염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들에서 비상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베이징, 천진시에서 주민들이 오염물질배출량을 극력 줄이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운행에 대한 통제도 엄격해지고 있다.

해당 부분과 단위들에서 자기

여 리 나 라 정 당 , 단 체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 구채

쓰르비아의 세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이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에대한 위협을 초월한 것이라면서, 특히 싸우는 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 것이다.

성명은 이번 군사연습을 방대한 무력이 참가하는 핵전쟁연습으로 막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키 리졸》,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파란시키고 조인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또 다시 엄청난 난관을 조성하였다.

력사적으로 미국은 세계적판도에서 민주주의와 평화, 안정을 파괴하고 민족분열과 인종차별을 일삼아온 최대의 범죄국가이다. 미제는 조인을 분할시키고 1950년 조인전쟁을 도발하였으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공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며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이는 핵전쟁수단을 철수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리 학 남

대기오염을 가시기 위한 노력

중국에서 인개면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베이징과 천진시, 하북성과 그 주변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개면지발생은 사람들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현안을 일부 지역에서 찬풍기가 약화되고 바람이 적어지면서 대기속의 오염물질들이 흩어지지 못하는 동시에 땅결면의 공기습도가 급속히 높아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인개면지가 사람들의 건강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중국당과 정부는 인개면지에 의한 대기오염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들에서 비상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베이징, 천진시에서 주민들이 오염물질배출량을 극력 줄이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운행에 대한 통제도 엄격해지고 있다.

해당 부분과 단위들에서 자기